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Memories and the Locality of Pusan

-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of Busan and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

송 정 숙(Jung-Sook Song)**

< 목 차 >

| | |
|--|-----------------------------|
| I. 머리말 | 본 부산의 로컬리티 |
| II. 기억과 로컬리티 | 1. 정주의 공간에 대한 기억 |
| III. <부산의 인물>에 대한 기억을 통해 본 부산의 로컬리티 | 2. 이주의 공간에 대한 기억 |
| IV. <부산의 문화재>에 대한 기억을 통해 | V. 맺음말 :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제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기 위해 우선 부산의 로컬리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부산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기억이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므로 부산에 대한 기억이 부산의 지역정체성, 즉 로컬리티 형성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과 정체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산에 대한 기억을 분석함으로써 부산의 로컬리티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부산에 대한 기억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의 인물>을 시대와 주제로 분석한 결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등재된 인물이 없었고, 조선시대에도 장영실을 제외하고는 부산 출신의 학자는 없었다. 등재된 인물의 대부분은 부산으로 부임해 온 동래부사와 같은 목민관이었다. 그러나 개항기에 이르면 신교육을 받은 부산인물의 약진이 눈에 띈다. <부산의 문화재>를 분석한 결과 동래구, 수영구, 사하구는 정주의 공간임을, 중구와 그에 인접한 서구와 영도구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주의 공간이며, 동구는 정주의 공간에서 개항을 계기로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음을 밝혔다. 조선시대의 행정중심지였던 동래가 개항 이후 주변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인의 집단거주지인 이주의 공간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는 관부연락선과 경부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키워드: 로컬리티, 기억, 로컬리티의 기록화, 부산의 인물, 부산의 문화재, 지역적 특성, 지역 정체성, 지역성, 정주 공간, 이주 공간

ABSTRACT

To examine the locality of Busan is a precondition of examining documenting localities of Busan. What is the locality of Busan and how can I explore the locality of Busan? These a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thesis. Memory is fundamental in making an identity. So local memory is fundamental in making locality.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memory and identity, the author explored the locality of Busan by analyzing memories of Busan. To analyze memories of Busan is to examine historical figures of Busan and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which are on the websit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historical figures of Busan, there are no confucius scholars who came from Busan. However in the age of civilization, Busan has produced some talented people by way of receiving a modern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Jung-gu(中區) and Seo-gu(西區) and Yeongdo-gu(影島區) are the spaces of migration. Dongnae-gu(東萊區), Suyeong-gu(水營區) and Saha-gu(沙下區) and Gijang-gun(機張郡) are the spaces of settlement. Dong-gu(東區) has changed from a space of settlement into a space of migration with the opening of the Busan Port as a momentum in 1876.

Keywords: Locality, Memory, Historical figures of Busan,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The space of settlement, The space of migration, Documenting localities, Local identity, Local originality

* 이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I. 머리말

공간의 힘과 인간의 운명은, 물리적 지역과 자연환경에서부터, 지속되는 문화와 지역전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간의 힘에서 자유로워지게 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태어난 곳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운명짓는 강력한 요소이다. 이동이 일상적인 것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태어난 데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죽을 것이다.¹⁾ 우리 모두는 태어난 곳과 모국어, 신념체계와 보건환경, 환경적 규범과 정치적 상황 등의 공간의 짐을 지고 있으며,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장애물이기도 하다.²⁾

공간은 가장 극명하게는 출생지로서,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제한된 장소로서,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많은 이들의 운명은, 제 경계 안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행운과 불운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³⁾ 공간의 힘은 문화적 전통에서 자연현상에 이르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규정한다.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대응하며,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형성한다.⁴⁾

현재 부산광역시 15구·1군으로 이루어진 인구 360만명의 거대도시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이지만 100년전에는 동래부 부산면으로 표현되었다. 동래가 중심이고, 부산은 동래부 소속의 면이었다. 1910년 10월 부산부(釜山府)가 설치되면서 부산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부산은 동래현의 속현인 동평현의 작은 어촌마을로서 인구는 80여호가 살고 있었다. 100여년 전에는 동래부 부산면으로 동래가 중심이고, 부산은 동래부 소속의 면이었다. 1910년 10월 부산부(釜山府)가 설치되면서 부산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⁵⁾, 그 이후 부산은 계속 성장하여 15구·1군으로 2011년 12월 현재 인구 약 360만 명의 거대 광역시가 되었다. 부산이 이렇게 성장한 결정적 계기가 1876년 병자수호조규 이후 최초의 개항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산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의 최남단에 위치하였으므로 일본으로 가는 사행이 출발하는 곳이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사신이 오가는 왜관이 설치된 유일한 곳이다. 이처럼 부산은 국방의 요새이자, 대일무역의 관문이었다.

조선시대에 항구나 역은 정제되지 않은 혼돈의 공간, 속된 공간이므로 철저하게 변방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이후, 특히 개항장이 된 부산은 국외의 새로운 자본

1) Harm de Blij, 공간의 힘: 지리학, 운명, 세계화의 울퉁불퉁한 풍경, 황근하 옮김(서울 : 천지인, 2009), p.11.

2) 윗책, p.16.

3) 윗책, p.214.

4) 윗책, p.359.

5)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韓國民族文化(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21권(2004. 4), pp.260-261.

과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부산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힘이 조선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산을 가파르게 변모시켰다.

이러한 부산의 지역정체성, 즉 부산의 로컬리티는 무엇일까? 부산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후손들은 부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부산의 로컬리티는 부산이라는 로컬(local) 공간의 다양한 양상과 속성으로 형성되는⁶⁾ 부산의 지역성, 부산의 지역정체성, 부산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⁷⁾ 그러면 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정체성[identity]의 문제는 기억[memory]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내가 '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를 기억하고 내일의 '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의 지역정체성도 우리가 부산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부산의 인물〉, 〈부산의 문화재〉 등에서 부산에 대해 떠올리는 상징, 장소, 사진, 혹은 인물 등이 부산의 구체적인 어느 지역과 관련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부산이라는 로컬이 지닌 특성, 즉 부산의 로컬리티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서 정주(定住)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동래 지역과 이주(移住)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범위는 개항기 이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두 지역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부산의 로컬리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은 개항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부산이 최초로 개항장이 되고 난 이후에 관부연락선이 개통되고, 경부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조선과 일본, 부산과 서울간의 공간적인 거리가 극복되고 장소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⁸⁾ 이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을 이주(移住)의 공간으로 명명하고, 이 지역과 대비되는 전통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동래읍과 인근지역, 즉 지금의 동래구를 개항 이후 새롭게 형성된 이주의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주(定住)의 공간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개항을 계기로 부상하는 이주의 공간을 전통의 공간인 정주의 공간과 대비해 봄으로써 부산이라는 로컬(local)의 특성, 즉 로컬리티(locality)가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장세룡, "이동성과 이주공간의 변화, 그리고 로컬리티의 생성,"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7권(2012. 4), p.135.

7) 문재원, 이상봉, "마산의 지역성을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 '가고파' 이미지의 전유와 기획을 중심으로," 석당논총(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제47집(2010. 7), pp.62-63.

8) 한주성, 교통지리학의 이해(과주 : 한울아카데미, 2010), p.16.

II. 기억과 로컬리티

장소는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장소는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아 나름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것이 장소성이다. 인간이 장소성에 개입하는 주된 방식은 기억과 재현이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물과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따라 장소성의 내용은 달라진다. 따라서 사물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거기에는 권력관계, 즉 기억의 정치, 재현의 정치가 작동한다. 또한 기억과 재현에는 기억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기 위한 '선택과 배제'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이 과정에 주목하면 특정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권력관계 등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⁹⁾

역사가들은 기억을 두 갈래로 평가해 왔다. 기억은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복잡한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실증적 객관주의적 입장과 기억에 근거한 역사서술은 비록 한계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억제되고 전치되며 부정된 기억'이라도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해체적 주관주의 입장이 그것이다. 최근에 기억의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¹⁰⁾ 여기서는 로컬인의 로컬에 대한 기억과 로컬인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한다.

1. 기억은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다.

기억이란 마음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의 시간을 되돌려보는 것이다.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됨으로써 기억은 완전해지며, 그 기억은 나를 존재감있는 자아로 만든다. 그러하기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다가올 미래까지 송두리째 도둑맞는 것이다.¹¹⁾

인간의 기억은 기계에 집어넣으면 똑같이 재생되는 DVD와는 다르다. 우리의 기억은 기억을 꺼낼 때마다 계속 바뀐다. 기억은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매번 다르게 해석할 뿐이다. 그 점이 우리를 타인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든다.¹²⁾ 즉 기억은 자아의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다. 따라서 로컬인의 로컬에 대한 기억은 로컬의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억은 선택적이다.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 만들었던 이미지 등을 끄집어내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인문학연구단, "로컬리티의 이름으로 장소를 묻는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로컬리티 연구총서 3(과주 : 혜안, 2010), pp.5-6.
10) 장세룡,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 폴란드 예드바브네 유대인 학살 지역의 사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잊혀진, p.138.
11) 김윤환, [KBS] 기억제작팀, 기억 : KBS 사이언스 대기획 인간탐구(서울 : KBS미디어, 2011), p.27.
12) 잊혀진, pp.55-56.

는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은 지워질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¹³⁾ 우리가 겪은 어떤 상황을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만을 기억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 그 후에 기억을 잘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겪은 경험 모두가 똑같이 기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으로 각성되어 기억이 증진되는 것은 기억 중 일부분이다.¹⁴⁾ 따라서 로컬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3. 기억은 경험에 대한 불완전한 재구성이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기억도 원래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이 마치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억해 내는 것을 비디오카메라 트는 것처럼 그대로 회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에 형성되어 뇌로 들어간 기억은 변하고 앞으로 생겨나는 기억도 변한다. 우리가 의식하는 기억은 기억을 해 낼 때마다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상할 때 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기억의 회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¹⁵⁾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 낼 때, 기억해 낸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바뀐 내용을 보면, 이야기 내용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 자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확대시켜 원문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사고 방식에 맞도록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처럼 기억은 경험에 대한 불완전한 재구성이므로 로컬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망각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4.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 : 사회적 기억

기억은 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기억'도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기억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 태도, 시간관 관념 등에 따라 특정 과거가 선택, 왜곡, 망각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이다.¹⁷⁾ 여기서 주로 활용된 이론이 알박스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론이다. 집단 기억 혹은 사회적 기억은 진상 그 자체라기 보다 정치적 문화적 산물로서의 과거에 대한 이미지이다.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가 재구성되는

13)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한국사회학회), 제35집, 제5호(2001. 10), p.201.

14) 윤영화, 뇌과학에서 본 기억과 학습(서울 : 학지사, 2008), pp.113-114.

15) 윌첵, pp.116-117.

16) 윌첵.

17) 권귀숙, 윌글, p.204.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 된다. 오늘날의 사회적 맥락과 그 동안의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자신들의 직, 간접적 경험을 재구성한다. 즉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인 셈이다. 그러므로 기억은 문화적 실천행위이자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억도 사회적 현상이기에 당시 처해진 위치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를 기억하고 서술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고 단일한 작업이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의 관점으로 과거를 기억하는가에 따라 재현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기념과 재현에는 기념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기 위한 '선택과 배제'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이 과정에 주목하면 특정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관계 등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기억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특히 (국공립)기념관이나 박물관은 독자적인 논리에 근거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이뤄낸다는 점, 즉 의도된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⁸⁾

III. <부산의 인물>에 대한 기억을 통해 본 부산의 로컬리티

부산에 살고 있는 로컬(local) 사람들은 부산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즉 부산이라고 할 때 무엇을 떠올리며, 부산의 특성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산의 인물>을 통해 본 부산에 대한 기억, <부산의 문화재>를 통해 본 부산의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아래의 <부산의 인물>조에서는 부산 인물의 주제를 과학자, 독립운동가, 목민선정, 선각자 및 학자, 정렬효행, 충신열사, 향토수호, 부산광역시 문화상¹⁹⁾,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9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57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문화상'의 수상자와 1985년에 제정된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수상자는 비교적 최근의 인물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산의 인물>에 등장하는 인물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8) 박수경, 이상봉,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로컬리티: 지역적 기억의 국민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책, p.251.
19)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의 <부산의 인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문화상은 1957년 과학, 문학, 미술, 음악, 사진공예, 체육 분야에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부산 지역의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http://www.busan.go.kr/04ocean/0403person/01_01.jsp>[인용 2012. 3. 10]

<표 1> <부산의 인물>을 통해 본 부산의 기억

| | 주제 | 성명 | 생몰년 | 업적 | 기록 | 기념물 |
|------|------|------------|-----------------------------|--|------------------------------------|-----------------------------------|
| 신라 | | | | | | |
| 고려 | | | | | | |
| 과학자 | 과학자 | 장영실 | 조선 세종조 | 혼천의 제작, 금속활자 갑인자의 주조...측우기와 수표 발명 | | |
| | 정렬효행 | 전소사, 함소사 | | 최익준의 어머니와 아내, 남편이 죽자 굶다 따라 죽음 | | 열녀문 |
| | | 효녀 김씨 | 조선 성종조 | 부친이 병으로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음 | | |
| | | 효자 김득인 | 세조 때에서 중종 사이 |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3년간 여막살이를 함 | 조정에서 종사랑 풍저창의 부병사의 직첩을 내림 | |
| | | 효자육중손(육석근) | ?-? |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끊어 부친의 병을 낫게 함 | 『속삼강행실도』와 『조선명륜록』에 실림 | 중종 2년(1507)에 효자비를 세우고 단(壇)까지 지어줌. |
| | | 효자효부친씨 일문 | ?-? | 동래 석대동 친씨 가문 부모 치병에 힘썼으며, 별세 후에는 3년씩 시묘를 함 | | 정려각 |
| 조선전기 | 정운 | 1543-1592 | 영암 출신, 임진왜란 때 녹도만호로 활약, 전사 | 병조참판에 추증 | | |
| | 윤홍신 | ?-1592 | 1592년 다대포침사로 부임하여 임진왜란 때 순사 | 『징비록』과 『재조변방지(再造蕃邦志)』에 기록이 남아있음, 『윤공유사(尹公遺事)』,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에는 구체적인 사적이 남아 있음 | | |
| | 충신열사 | 노개방 | 1563-1592 |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어머니님 봉양을 위해 자원하여 동래향교의 교수직을 역임 | 업린이 적은 『동래교수 증도 승지 노공유사기』, 노개방의 전기 | |
| | | 송상현 | 1551-1592 |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로 활약하다가 순사 | | |
| | | 정발 | 1553-1592 | 임진왜란 때 부산진첨절제사로 왜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 | | |
| | | 조영규 | ?-1592 | 임진왜란 때 동래성에서 전사 | | |
| | | 문덕겸 | ?-? | 향교에 봉안한 선현의 위패를 모시다 임진왜란 때 순사 | | |
| | | 양조한 | ?-? | 노개방교수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임진왜란 때 순절 | 『화왕수성록』 | |
| 조선후기 | 목민선정 | 조엄 | 1719-1777 | 동래부사, 경상도관찰사, 통신사 활동, 고구마 전래 | 저서: 『해사록』, 『해행총재』 | |
| | | 강필리 | 1713-1767 | 고구마 재배자, 승지 대사헌 역임, 동래부사 재임 시 동래온천 목욕탕 만들 | 저서: 『윤공사절기』기술, 『감저보=일명 강씨 감저보』 | |
| | | 정언섭 | 1686-1748 | 동래읍성 축성, 수성창 설치 | |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 | | | | | | |
|-------|----------|-------------------------|---|---|---|------------------------------------|
| 조선 후기 | 목민 선정 | 박사창 | 1687-1741 | 동래부의 군사시설 정비, 군관청 등의 조직 완비, 용두산 외곽 은산에 북병막 설치 | 1740년에 『동래부지』 편찬. 부산지방의 향 토사연구에 가장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가 되고 있음 | |
| | | 고경명 | 1533-1592 | 임진왜란 의병활동 | 저서 : 『제봉집』, 『유서석록』 | |
| | | 정현덕 | 1810-1883 | 대일외교를 위정척사로 일관함. 동래읍성 수축 | | |
| | | 민정중 | 1628-1692 | 성균관 전적 예조좌랑 세자시강원 사서... 동래부사로 활동 | 저서 『임진유문』 편찬. 이 기록은 동래, 부산, 다대포 전쟁의 항쟁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신, 열사, 민의 실태를 알 수 있음 | |
| | | 이춘원 | 1571-1632 | 정유재란때 광양 현감으로 남원 싸움에서 활약... 동래의 평정을 되찾음 | 인빈현의 내주신영(萊州新詠) 이 전함 | |
| | | 이안눌 | 1571-1637 | 송상현공을 모신 사당인 송공사에 휘진제를 올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분들을 애도 | 『행하유감』시가 전함 | |
| 향토 수호 | 안용복 | ?-? |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막부정부가 자인하도록 활약한 민간 외교가이자 어부 | 『속중실록』, 『비변사등록』 등에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 오히려 일본측의 사료에 상세히 남아 전해짐 | 수영공원의 충혼탑 | |
| 개항기 | 목민 선정 | 지석영 | 1855-1935 | 국문연구소의 연구원. 우리나라 최초의 중독 시술 | 『우두신설(牛痘新設)』 저술, 『자전석요』를 집필 | 1988년 동래 금강공원 안에 동래부사 송촌 지석영선생 공덕비 |
| | 선각자 및 학자 | 박기중 | 1839-1907 | 부산개성학교 설립, 부하철도(부산~하단), 영남지선 철도 회사 설립 | | |
| 일제강점기 | 독립 운동가 | 구포시장 의거 | 1919. 3. 29. |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일반 민중들이 참여, 구포장날, 장터에서 만세를 외침 | | |
| | | 동래고보 학생 의거 | 1919. 3. 13 | 동래고보 학생들 동래장날에 거사 | | |
| | | 동래 범어사의 학생 의거 | 1919. 3. 18 | 동래읍 서문 → 동래시장 → 남문까지 행진 | | |
| | | 문시환 | 1899-1973 | 3.1독립운동 전 상해의 독립운동 지사들을 돕고 활약. 의열단 | | |
| | | 부산의 학생 항일운동(소위, 노다이 사건) | 1940. 11. 21. | 일본군 노다이(육군대좌)의 지휘로 군사연습때 민족차별에 대한 한국학생의 분노 표출 | | |
| | | 부산진 일신여학교 의거 | 1919. 3. 11. | 좌천동 거리에서 만세 시위 | | |
| | | 박재혁 | 1895-1921 | 의열단에 입단. 부산경찰서 폭파 | | 1962년 건국훈장국민장, 어린이공원 내에 동상 |

| | | | | | | |
|-------|----------|-------------|--|--|---|---------------------------------|
| 일제강점기 | 독립운동가 | 박차정 | 1910-1944 | 항일독립운동 전선에 참여, 서울 근우회 선전부장, 여자 의용군의 대장 | | 박차정 의사 승모회를 중심으로 추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 | | 안희제 | 1885-1943 | 부산 최초의 무역회사인 백산상회 설립(민족운동 국내후원기관의 역할), 항일독립투사 활동 | |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 부산시 안희제기념관 |
| | | 윤현진 | 1892-1921 | 의춘학원, 의춘양행 설립, 소비조합운동 전개(최초의 소비자운동), 안희제와 함께 백산상회 설립 | | 1962년 국민훈장 추서 |
| | | 장건상 | 1882-1974 | 임정 임시의정원 외무부 위원,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의열단 활동 | | 1986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 추서 |
| | | 정관 좌천 시장 의거 | 1919. 4. 8. | 좌천 장날 만세 시위 | | |
| | | 최상훈 | 1868-? | 관내 부주사, 의군부 헌병대장, 북로군정서 교관 | | |
| | | 변봉금 | 1880-1958 | 최상훈의 부인, 독립투사동지들을 보살핌 | | |
| | | 한홍교 | 1885-1967 | 중국혁명군 구호의장, 북벌혁명군 홍십자회 대장 | | 1977 건국포장 추서 |
| | 선각자 및 학자 | 김병규 | 1887-1962 | 동래 삼락학교 교사로 학생에게 근대사상과 민족사상 주입 | | |
| | | 손진태 | 1900-195? | 민족사학, 역사이론의 수립에 힘 쓴 신민주의의 사학자 | 1948년 『한국민족실화연구』를 발간, 『조선민족사개론』, 1949년 『국사대요』를 출판 | |
| 오태환 | | 1884-? | 민족자본육성을 위해 동래은행의 창립에 참여, 사회사업과 민족 교육에 힘씀 | | | |

위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고려시대 이전에는 <부산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 없다. 이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부산에 드러낼 만한 인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의 인물로는 세종조 관노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과 효자, 효녀, 효부가 등록되어 있다. 충신열사로는 임진왜란 때 부산을 수호하다가 전사한 송상현, 정운, 윤홍신, 정발, 조영규, 문덕겸, 양조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동래부사 송상현, 다대포첨사 윤홍신, 녹도만호 정운, 부산진첨사 정발, 양산군수 조영규 등은 문무과를 거쳐 지방관으로 부임해 왔다가 임진왜란을 맞이한, 부산 출신이 아닌 외지의 인물이고, 부산인물은 향교에서 밀양 출신의 교수 노개방의 문하에 공부하던 문덕겸과 양조한의 둘뿐이다.

조선후기의 인물로는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던 숙종조의 동래 수군 안용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래부사로 부임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외지의 인물로서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인물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부산의 인물> 가운데 부산 출신은 관노 출신의 장영실, 어부였던 안

용복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산이 배출한 인물이 아니라 부산에 부임하였던 목민관이었다. 이는 동래 [부산 포함]에 문과급제자가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이, 부산은 조선조 성리학의 학문적 분위기에서는 소외되었던 변방이었음을 말해 준다.

개항기부터 부산 출신 인물의 약진이 눈에 띈다. 선각자 및 학자에 부산 좌천동 출신인 기업가 박기중,²⁰⁾ 동래읍 출신의 교육자 김병규, 북구 출신의 민속학자 손진태, 기장 철마 출신으로 일신여학교를 인수한 오태환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배경에는 신식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규는 외숙 이광욱 밑에서 한학을 익혔고, 개양학교에서 근대학문을 익혔고, 박기중은 동래상고(東萊商賈)로서 일본어를 익혀 일본동이 되었고, 손진태는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신학문의 선봉에 설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인물로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은 구포시장 의거, 동래고보 학생 의거, 동래 범어사의 학생 의거, 부산진 일신여학교 의거로서 구포, 동래, 부산진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청년 학생의 주도로 일반 민중이 참여했던 구포의거는 낙동강 하류의 포구로서 육상교통, 수륙운송의 중계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하였던 구포의 장날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동래는 동래부가 있던 행정중심지이고, 동래고보 학생들과 범어사의 학생들은 동래읍 장날에 거사를 단행하였다. 이를 볼 때 독립운동은 정주(定住)의 공간에서 나타났다. 일신여학교는 이주(移住)의 공간인 동구 좌천동에 설립되었으나, 설립주체가 호주 선교단이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박차정도 일신여학교 출신이다.

의령 출신 안희제는 부산 최초의 무역회사였던 백산상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단순한 상인, 기업가가 아니라 민족자본의 육성자였고, 민족교육의 선구자였으며, 민족사상의 고취자로서 항일독립투사였다.

20) 1839년 부산 좌천동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초량왜관의 일본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특권상인인 동래상고(東萊商賈)가 되어 상업에 종사하며, 한편 일본어를 익혔다. 그는 어장(영도 한진중공업앞 해역)과 김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산의 부호가 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그해 제1차 김기수 수신사 일행이 도일 할 때 동행하여 일본의 근대적 시설, 문물을 접하였고, 그 후 또 한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제철소, 조선소, 철도를 견학하고 해운업을 살폈다. 1895년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교육기관인 부산개성학교를 세웠다.

1886년 10월 부산항 경무관에 임명되어 1898년 8월까지 근무하였고, 한편 고장의 상업발전을 위해 영주동에 상무소를 설립하였다. 또 1897년 9월에는 부하철도(부산 ~ 하단)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01년 일제의 방해로 인해 부하철도는 개설상 큰 어려움을 겪고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1896년 8월 외부 참사관으로 승진, 1899년에는 동지를 구하여 대한철도회사를 받기했으나, 그 뜻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1902년 6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선 철도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일제의 강압으로 그의 이권을 빼앗기고 재산도 잃었다. 1905년 6월 그는 변리공사라는 한직을 받기는 했으나 그는 계획했던 일이 좌절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별세하였다. 그는 부산에 있어 개화의 선각자였다.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04ocean/0403person/04_01.jsp> [인용 2012. 3. 10].

IV. <부산의 문화재>에 대한 기억을 통해 본 부산의 로컬리티

부산의 문화재는 부산에 소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를 포괄하여 일컫는데, 이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아래 '부산의 역사'조에 게시되어 있다. 문화재²¹⁾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부산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부산의 문화재>를 생성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생성시기는 통일신라 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구분하였고, 소재지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15개구 1개군으로 구분하였다.

<표 2> <부산의 문화재>를 통해 본 부산에 대한 기억

| 행정 구역 | 통일신라이전 | | 고려 | | 조선 | | 개항기 | | 일제강점기 | | 현대 | 계 |
|----------|--|---|--|-------------|--------------------------------|--|---|--|---|-----------------------|----|----|
| | 이름 | | | | | | | | | | | |
| 중구 | | | | | | | | | 북평산배수지(1910)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부산지방기상청 | 3 | | 3 |
| 서구 | 구덕망개 터다지기 | 2 | 도기용기문 발(신석기) | 1 | 쌍기총통 지자총통 목조관음보살좌상(1730) | 3 | | (구)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1927)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구 남선전기) 사옥(1932) 임시수도기념관 대통령관저 | 3 | 부산임 수도 정부청 사 | | 9 |
| 동구 | | | | | 부산진지성 정공단 부산진지성서문성곽우주석 | 3 |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 (1906) 부산진일신여학교 (1905) | 2 | 초량동 일식가옥(1925) 연등사 석가영산회상도(1924) 정란각(1939) | 3 | | 8 |
| 영도구 | 태종대 | 1 | 동삼동배총 (신석기) 도기용기문 발(신석기) | 2 | 목장지도 | 1 | 북천사 현왕도 및 북장유물 일괄 북천사 지장시왕도 (1892) 북천사 아미타극락 회상도(1892) 북천사 특성도 및 북장유물 일괄(1892) | 4 | 북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살좌상(1922) 북천사 석가영산회상도 (1921) 영도대교(1934) | 3 | | 11 |
| 부산 진구 | | | | 선암사 삼층석탑 | 1 |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북장유물 일괄 대원사 독성탱 | 2 | | 선암사 캐불탱(1926) | 1 | | 4 |
| 동래구 | 동래아류 대급산조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충렬사제향 동래고무 동래현량춤 | 7 | 동래배총 (삼한) 북원동 고분군(삼 국-기아) 도기발머리 장식빨간 (삼국) | 3 | 고려 오층석탑 | 1 | 동래부동원 망미루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 동래향교 충렬사 장관청 군관청 원광사 석가설법도 | 18 | | | | 29 |

21) 문화재(文化財)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knowledge/notion_01.jsp?mc=NS_04_02_01>. [인용 2012. 4. 2].

| | | | | | | | | | | | | |
|-----|-------------------------------|----------------|----|------------|---|----|--|----|-----------------|----|--|-----|
| 연제구 | | 연산동고분군 배산성지 | 2 | | 마하사 현왕도(1792) 마하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 4 | 마하사 영산회상도(1906) 마하사 응진전 영산회상도(1910)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1910) | 3 | 해원정사팔상도(1925) | 1 | | 10 |
| 수영구 | 수영아류 좌수영어방 놀이 수영농정놀이 | | 3 | 정과정 유적지 | 수영성남문 좌수영성지 25의용단(1853) 마애지장보살좌상 | 4 | | | | | | 8 |
| 사상구 | | | | | 운수사 대웅전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 2 | 운수사 아미타삼존도(1907) | 1 | | | | 3 |
| 기장군 | 동해안별신굿 표관음사 불자 | | 2 | | 해서(海西)암행일기 장안사 대웅전 석조 삼세불좌상(1659)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 삼존삼육나한상(1684) 장안사 명부전 석조 지장시왕상(1684) 장안사 대웅전 석가 영산회상도(1856) 장안사 명부전 지장 보살도(1856) 장안사 대웅전 기장이이불수대 기장향교 기장읍성 기장적화비(1871) 기장죽성리왜성 기장 장관청 기장남산봉수대 척관암 석조여래좌상 표관음사 오여래탱 | 16 | 장안사 응진전 석가영산회상도(188 2) | 1 | 안적사 지장시왕도(1919) | 1 | | 20 |
| 총계 | | | 19 | | | 7 | | 23 | | 16 | | 178 |

위 <표 2>의 <부산의 문화재>를 통해서 각 구의 지역적 특성인 로컬리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주의 공간에 대한 기억

1) 동래구

조선후기 동래부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방 및 외교상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관아의 수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고 한다. 정3품 당상관인 동래부사가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관아인 동래부 동헌은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호인 점²²⁾ 역사적으로 전통시대 행정의 중심지로서 정주(定住)의 공간이었음을 표상한다. 부속건물로 동헌의 대문이었던 동래도호아문, 즉 망미루와 외삼문인 독진대아문, 장관청, 군관청 등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던 교육기관인 향교도 동헌에서 멀지 않은 정주의 공간에 세워졌다. 동래에는 임진왜란 때 동래읍성을 지키다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과 그를 제향하는 충렬사, 임진동래의총 등 외적의 침입에 맞서 수호하고자 했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수호의 공간이다.

22) 김동철, 앞논문, p.261.

임진왜란 이후 온천천(溫泉川)에 새로 놓은 돌다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이섬교비(1694),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한 사실을 기념한 내주축성비(1735) 등 목민관의 선정을 돌에 새겨서 영구히 기억되도록 했다.

정주의 공간이므로 동래에는 정월 보름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래야류, 동래지신밧기, 대동놀이인 동래줄다리기, 그리고 북춤의 일종인 동래고무, 남성춤인 동래학춤과 동래한량무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개항기 이후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제는 전통공간인 동래를 철저히 소외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금정구

금정구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범어사 경내의 건물과 범어사 소장 문헌과 책판 등 불교문화재이다. 금정산성은 낙동강 하구와 동래 지방이 내려다 보이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로 침입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쌓았다. 금정산성을 보수한 뒤 산성의 면모를 새롭게 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인 금정산성부설비(金井山城復說碑)가 등재되어 있다.

부산시에 문화재로 등록된 문헌 가운데 유가관련 문헌이나 서원 등의 건물은 없고, 문화재로 지정된 문헌이나 책판도 대개가 불교문헌인 것으로 보아 불교적 색채가 타 시도보다 높은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보인다.

3) 수영구

수영이라는 지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곳은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²³⁾, 즉 경상좌수영이 있었던 곳이다. 경상좌수영에는 무관인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1개의 첨사영(僉使營)이 있었으며, 낙동강의 동쪽에서 경주까지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해군기지가 있었던 수영구에는 좌수영과 수영성남문, 좌수영성지 등이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에 맞서 7년 동안 유격전으로 적에 대항하였던 좌수영의 수군과 성민 25인을 기리기 위해 쌓은 25의용단(1853)이 임진왜란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정월 대보름날 풍년을 기원하는 들놀이인 수영야류와 연안어업이 성하였던 수영에서 지역주민과 비번의 수군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불렀던 좌수영어방놀이, 벼농사의 농업노동요를 중심

23) 원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 감만이포(戡蠻夷浦, 남구 감만동)에 있었으나 태종 때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겨 갔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636(인조 13)년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으나, 감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1652(효종 3)년에 또다시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고종 31)년 갑오경장에 따른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혁파되기까지 243년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으로 연희화한 수영농청(水營農廳)놀이 등이 지정되었다. 이곳은 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국방의 중심지로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연희들이 전하고 있음을 볼 때 정주(定住)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수영구 망미동은 유배당한 지식인의 비애를 간직하고 있으니, 고려 인종·의종 때의 동래 사람으로 간신의 모함으로 1151(의종 5)년 동래로 유배당하고 난 뒤 자신의 결백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정과정곡(鄭瓜亭曲)」의 유적지가 있다.

4) 기장군

기장은 옛 기장현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기장읍성, 기장군 소속의 군관들이 사용하던 집무소였던 기장장관청, 지방교육기관인 기장향교, 서생포 방면의 군사정보를 중앙으로 알리는 옛 통신시설의 하나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던 기장이이봉수대, 기장남산봉수대가 등재되어 있다. 기장은 동해안의 어촌이므로 풍어와 선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을축제인, 직업적 세습무가 행하는 동해안별신굿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백성들을 보호할 성이 있고, 행정관청이 있으며, 기층민들의 대동제가 있음을 볼 때 기장은 정주의 공간이다. 673(신라 문무왕 13)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장안사에는 원효대사의 전설이 깃든 척관암의 석조여래좌상²⁴⁾을 비롯하여 장안사 관련 문화재가 여럿 전한다.

5) 사하구

조선시대에 다대포는 다대진이 있었으므로 다대포첩사가 부임할 때 의식을 치르고 또 임금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안치하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망배(望拜,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하는 것)를 드리던 다대포객사가 등록되어 있고, 임진왜란 때 순절한 다대첩사 윤흥신(尹興信)과 민·관·군의 넋을 기리고 제향을 봉행하기 위하여 세운 윤공단(1756)과 1592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右部將)으로 싸우다 순절한 녹도만호 정운을 기리는 정운공 순의비(1798)가 등재되어 있는 수호의 공간이다.

다대포는 예로부터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촌이므로 멸치잡이 후리질할 때 부르며 풍어를 기원하는 다대포(多大浦)후리소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위에서 살폈듯이 사하구의 경우 다대진성을 수호하고자 왜적과 싸운 항전의 기억이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로컬인들의 풍어제를 간직하고 있는 정주의 공간이다.

6) 북구

북구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명나라 연합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던 왜군이 해안에 성을 쌓고 장기전

24) 장안사 뒤쪽에는 원효대사가 수도 중에 중국 중난산 운제사의 대웅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소반을 던져 대웅전에 있던 1,000여 명의 중국 승려들을 구했다는 전설이 전하는 척관암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1593(선조 2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왜장 코바야카와(小早川隆景)와 다치바나(立花宗茂) 등이 쌓은 일본식 성인 구포왜성(1593)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정주의 공간에는 조선조의 행정 중심지이거나 국방의 요새로서 로컬인들을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성(城)이 있고 로컬인들이 풍년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대동제가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로컬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역사가 오랜 사찰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산시에 등록된 조선시대 문화재의 사상적 색채는 불교 일색이다. 문화재로 등록된 문헌이나 책판도 불서(佛書) 일변도이고 그 외의 유물도 그러하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조선시대의 건물을 보면, 지방관청인 동래부, 좌수영, 다대진, 부산진의 부속건물과 성과 임진왜란 중 일본이 쌓은 왜성, 임란 때 순사한 이를 위한 추모공간, 지방관청 관할 하의 지방교육기관인 향교 외에는 모두 사찰이다. 조선후기,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기 전에 전국에 서원이 약 650개나 되었는데, 부산에는 임진왜란 때 동래성과 운명을 같이한 송상현을 모신 총렬사뿐이다. 이는 조선성리학의 학통을 이어갈 성리학자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조선시대에 부산지역(동래)에서 문과급제자가 1명도 배출되지 않은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범어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의 선암사, 북구의 만덕사, 해운대구의 관음정사, 기장의 장안사, 연제구의 마하사 등 문화재를 보유한 고찰들이 부산지역 로컬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신자의 비율이 부산은 67.4%로 전국 평균인 43%보다 23.4%나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부산의 종교인구 분포

(2005년 11월 1일 기준)²⁵⁾

| | 종교인구 | 종교유형별 인구구성 | | | | | | 종교 없음 |
|----|------|------------|--------------|--------------|-----|-----|-----|-------|
| | | 불교 | 기독교 (개신교) | 기독교 (천주교) | 유교 | 원불교 | 기타 | |
| 전국 | 53.1 | 43.0 | 34.5 | 20.6 | 0.4 | 0.5 | 1.0 | 46.5 |
| 부산 | 58.1 | 67.4 | 17.8 | 12.8 | 0.1 | 0.4 | 1.4 | 41.4 |

2. 이주의 공간에 대한 기억

1) 중구

중구는 임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1607년 설치된 두모포(豆毛浦, 수정동 부근)

25) "200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meta.kosis.kr/bzmt/MetaList.do?SURV_PHS_ID=48&curYear=2005>[인용 2012. 4. 10].

왜관이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옮겨오고, 개항 이후 초량왜관이 일본인의 전관거류지로 바뀔에 따라 형성된 부산에서 대표적인 이주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문화재들을 보면, 개항 이전에는 일본인의 활동을 제한하였지만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을 위한,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개항 이전인 1683(숙종 9)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대마도주와 왜관 주변에서 일어나는 밀무역과 잠상행위[매매가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 등의 범법행위의 처리에 대한 5개 조항의 조약²⁶⁾을 체결하고 돌아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가 등재되어 있다.

개항 이후의 문화재를 보면, 1904년 3월 7일 기상업무 전담기구인 측우소가 발전한 부산지방기상청,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주거지가 형성됨으로 인해 이곳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성지곡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건설한 복병산배수지(1910),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독점·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책회사로 토지수탈의 선봉 역할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착취하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산지점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지 건물로 사용하다가 1948년 9월 11일 체결된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미문화원으로 사용하였으며,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기에는 미국대사관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미 문화원으로 사용되던 1982년 3월 반미학생운동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우리나라 근대사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2) 서구

서구도 개항 이후 일본인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관공서와 일본인의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잇달아 개발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 이주의 공간이다. 서구의 문화재로 등록된 (구)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1927),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구 남선전기) 사옥(1932), 임시수도기념관 대통령관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성격을 읽을 수 있다.

(구)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은 1927년에 신축된 일본 보안대 건물이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구 남선전기) 사옥은 1932년 남선(南鮮)전기(주) 사옥으로 신축되었으며, 부산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다.

임시수도기념관 대통령관저는 1925년 4월 17일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옴에 따라,

26)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의 비문 내용은 첫째로,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 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둘째, 노부세(路浮稅:통행 수수료)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면 준 차와 받은 차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셋째, 시장을 열었을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넷째, 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창고지기·통역 등은 일본인을 붙들어 끌어내어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섯째로,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은 만약 불일이 있으면 왜관 사직(司直)의 통행증을 가지고 훈도와 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등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170000,21> [인용 2012. 3. 17].

1926년 8월 지금의 자리에 경상남도지사 관사가 준공되어 줄곧 경남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0년 8월 18일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오자 경남도청이 중앙정부청사로, 경남도지사 관사는 이승만 대통령관저로 사용하게 되었다. 1951년 1.4후퇴로 다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어 1953년 8월 15일 환도할 때까지 이 건물은 대통령관저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경상남도청으로 건립된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는 한국전쟁기에는 임시수도정부청사, 휴전협정 후에는 경상남도청, 경남도청 이전 후에는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본관 등으로 사용된 우리나라 근대사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건물이다.

일제는 부산이 유일한 항만의 관문일 뿐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업·교육·문화 등의 시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왔다.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 설은 1905년 경부선이 운행된 뒤 근 10여년 이상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총독부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진주는 ‘이전설’이 부산의 ‘운동’ 때문이라고 보고, 부산과 상거래를 거부하기도 했다.

1924년에도 이전설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격렬한 ‘도청이전 결사 방지’ 운동을 폈으나, 총독부는 12월 8일자 관보를 통해 도청의 ‘1925년 4월 부산 이전’을 확정하였다. 경부선이 비켜가 비슷한 처지였던 충남도청소재지 공주도 도청 이전방지 운동을 치열하게 펼쳤으나 1932년 10월 1일 대전으로 옮겨졌다. 철도가 새로운 도시를 낳고 그 주변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조선의 오랜 행정 중심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²⁷⁾

3) 동구

부산포는 제포와 더불어 1407년에 처음으로 왜관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일본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즉 부산포는 국방의 요새로서 가장 중요한 수호 공간이면서 정주의 공간이었던 반면에 왜관을 중심으로 왜인들이 이주하였던 이주의 공간이었다.

동구의 문화재를 보면, 개항 이전에는 일본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국방상 가장 중요한 이곳은 수호의 공간으로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나, 개항 이후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외의 자본들이 점유하는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신식학교, 일본식 가옥들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동구는 부산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정주와 이주의 두 공간이 중층화된 혼종의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주 공간의 보기로는 부산진지성, 부산진지성서문성곽우주석, 정공단, 척화비(1871),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1906) 등을 들 수 있고, 이주 공간의 보기로는 부산진일신여학교, 초량동 일식가옥(1925), 정란각(1939) 등을 들 수 있다.

동구는 부산진첨사영이 있었던 부산포로서 일본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흔히 자성대(子城臺)라고 말하는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은 1598(선조 26)년 왜장 모리(毛利輝元) 부자가 쌓은 일본식 성이다. 임진왜란 전에 부산포에는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내성(內城)인 본성은 현재 정공단이

27) 김영철, “道廳을 들어 옮긴 ‘철도의 힘,’” 조선일보(2012. 5. 3).

있는 일대를 중심으로 뒷산인 증산을 둘러싸고 있던 성이고, 자성대는 그 외성으로 쌓은 것인데, 이 외성을 왜군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왜성(倭城)으로 고쳐 쌓은 것이다.

부산진지성의 서문 양쪽에 있는 돌기둥인 부산진지성서문성곽우주석(釜山鎭支城西門城郭隅柱石)에 새겨져 있는 「남요인후(南邀咽喉)」·「서문쇄약(西門鎖鑰)」(“이 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되는 남쪽 국경이라.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라는 글자가 시사하듯이 국방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정공단(鄭公壇, 1766)은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 정발(鄭撥) 장군과 그를 따라 함께 전사한 여러 사람을 모신 곳으로 부산진성의 바깥쪽에 1766(영조 42)년 부산첨사 이광국(李光國)이 설치한 단이다.

척화비(斥和碑)²⁸⁾는 조선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겪은 뒤 서양과 일본 등 제국주의의 침략을 배격하고 쇠국을 강화할 굳은 결의를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신미양요 직후인 1871년 4월에 서울과 전국의 중요한 곳에 세운 비석 중의 하나로 이 비석은 원래 부산진성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조선 후기 대일외교의 실무관청이었던 유원각과 관련된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 1906)의 유원(柔遠)이란 ‘멀리있는 것을 회유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대일외교정책인 교린정책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이 소통사인 박기중 등이므로 비 아래에 묻은 문서는 소통사의 명부인 소통사선생안(小通事先生案)이고 이를 영구보존하기 위해 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이 비석은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와 함께 왜관 및 조선후기부터 근대의 부산역사와 대일관계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항 이후 동구는 부산항과 인접하고 경부선의 출발지이므로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이주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의 종교가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산진일신여학교이다. 이 학교는 호주장로교 선교회 여자전도부가 1895년 10월 15일 좌천동에 있던 한 칸의 초가에서 3년 과정의 소학교를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1909년 8월 9일 고등과(수업연한 3년)를 병설하였고, 1915년 8월에는 학칙개정에 의해 고등과를 4개년으로 하였다.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고급주택가로 추정되는 고관(현 일본영사관 일원) 후면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란각(貞蘭閣)은 1939년에 건축된 고급 일식 건물로, 특히 전통적인 일본 주거인 쇼인조[書院造] 형식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28) 비문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였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경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라고 적혀 있다. 1882(고종 19)년 임오군란이 발발하여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고 조선이 서구 열강 등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되자 척화비는 모두 철거되었다.

29) 김동철,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와 부산의 譯官 건물,” 港都釜山, 제16호(2000. 7), pp.342-384.

4) 영도구

영도구에서는 말의 방목장이 그려진 목장지도와 한국전쟁 때 피난민의 추억이 서린 영도대교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명승으로 지정된 태종대가 있다.

영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조 중기까지는 말을 방목한 목장으로 유명한데, 이곳이 그려진 목장지도(牧場地圖)는 조선시대에 제4차로 1678(숙종 4)년에 허목 등이 편찬한 것이다. 이 목장지도에는 동래부 절영도(絶影島)의 목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태종대는 오륙도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암석 해안의 명승지로서 신라 태종 무열왕이 활을 쏘아 후포를 맞힌 곳이므로 태종대라 했다고 전한다.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100m에 달하는 태종대 암석 절벽은 울창한 수림이 굽이치는 파도와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영도대교는 1932년 3월에 착공하여 1934년 11월에 개통된 길이 214.7m, 폭 18.3m의 우리나라 최초의 연육교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부산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영도대교는 8.15해방과 6.25전쟁 이후 생활고에 지친 피난민들이 애환과 망향의 슬픔을 달랬었던 장소로서 하루 총 6회씩 도개하여 부산의 명물로 자리하였다. 영도는 영도다리의 건설로 도심과 육로로 연결되고, 전차가 개통됨으로 인해 본격적인 이주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항 이후 관부연락선이 취항함으로 인해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거리가 극복되고, 경부선의 개통으로 부산과 서울 간의 거리가 극복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대개 천금일확의 투기심으로 바다를 건넜다. 부산은 특히 일본외교의 기지였던 왜관의 존재로 일본인에게 역사적으로도 친근한 곳이었다.³⁰⁾ 일본으로부터 한국에로의 이주자가 많아지고, 부산 개발은 일본인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행정중심지였던 동래는 주변화되고, 중구, 서구 등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영도대교의 부설과 전차의 개통으로 영도도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동구는 개항 이전에는 나라의 남쪽 대문과 같았던 국방의 요새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정주의 공간이었으나 개항 이후에는 부산항과 인접하고 경부선이 출발하므로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계지로서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V. 맺음말 : 부산의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제언

〈부산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기록화 할 것인가?〉는 〈부산의 로컬리티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곧 〈부산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부산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파

30) 吳美一, “開港(場)과 移住商人: 開港場都市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2008, 겨울호), p.44.

악하고자 하였다. 부산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부산의 로컬리티를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산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즉 <부산의 로컬리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로 연구가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부산 로컬리티의 기록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소에서 수행하는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이하 『부산대전』) 사업³¹⁾을 통해 부산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기술항목을 분석해 봄으로써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것과 기억해야 하는 것 사이에 간극[*gap*]이 있는가? 만약 양자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기억이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등의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로컬리티의 기록화를 위한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윤영화. 뇌과학에서 본 학습과 기억. 서울 : 학지사, 2001.
 부경역사연구소 편.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부산 : 부산은행, 2005.
 최해군. 부산이야기 62마당. 부산 : 해성, 2009.
 Harm de Blij. 공간의 힘: 지리학, 운명, 세계화의 울퉁불퉁한 풍경. 황근하 역. 서울 : 천지인, 2009.
 한주성. 교통지리학의 이해. 파주 : 한울, 201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로컬리티 연구총서3). 서울 : 혜안, 2010.
 김윤환. [KBS] 기억 제작팀. 기억 : KBS 사이언스 대기획 인간탐구. 서울 : KBS미디어, 2011.

■ 정기간행물

-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한국사회학회), 제35집, 5호(2001.10), pp.199-254.
 김동철.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와 부산의 譯官 건물.” 港都釜山, 제16호(2000. 7), pp.342-384.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韓國民族文化(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21권(2004. 4), pp.259-276.
 문재원, 이상봉. “마산의 지역성을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 : ‘가고파’ 이미지의 전유와 기획을 중심으로.” 석당논총(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제47집(2010. 7), pp.59-96.
 박수경, 이상봉.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로컬리티: 지역적 기억의

31) 양홍숙, “부산 로컬리티의 탐구: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S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러워크 자료집, 부산대학교 사회관 208호, 2010.11.19, p.21.

- 국민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로컬리티 연구총서 3, 도서출판 해안, 2010, pp.251-290.
- 송정숙.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6), pp.273-298.
- 양홍숙. “부산 로컬리티의 탐구: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S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로키엄 자료집. 부산대학교 사회관 208호, 2010.11.19, pp.19-40.
- 吳美一. “開港(場)과 移住商人: 開港場都市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2008. 겨울호), pp.40-80.
- 장세룡.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 : 폴란드 예드바브네 유대인 학살 기억의 사례.” 대구사학, 제98집 (2010. 2), pp.243-281.
- 장세룡. “이동성과 이주공간의 변화 그리고 로컬리티의 생성.”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7권(2012. 4), pp.133-170.
- 김영철. “道廳을 들어 옮긴 ‘철도의 힘.’” 조선일보(2012. 5. 3).

■ 전자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knowledge/notion__01.jsp?mc=NS__04__02__01〉
[인용 2012. 4. 12].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04ocean/0403person/01__01.jsp〉
[인용 2012. 3. 10].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tour.busan.go.kr/kor/05__culture/01__04/01/index.jsp〉
[인용 2012. 4. 15].

통계청 홈페이지. 〈http://meta.kosis.kr/bzmt/MetaList.do?SURV_PHS_ID=48&curYear=2005〉
[인용 2012. 4. 10].